

Rhodia, 소음 방지기능 EP 개발

유리섬유 함유 PP·PA보다 우수 ... 자동차에서 건축물까지 적용

Rhodia Engineering Plastics이 소음진동 성능이 개선된 새로운 Polyamide를 개발했다.

Rhodia Engineering Plastics은 최근 기존의 EP(Engineering Plastic)보다 음향성에서 탁월한 성능을 나타내는 새로운 2가지 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Rhodia의 음향개선 노력 결과 탄생한 <TECHNYL STARTMS 218dB1 M50>과 <TECHNYL STARTMS 218dB2 MV60> 2가지 제품은 기존 시스템의 음향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유리섬유가 함유된 PP 혹은 PA 제품보다 음향적으로 4dB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스템 디자인을 변경할 필요 없이 값비싼 폼류 및 여러 소음 저감용 재료를 제거할 수 있으며, 전체 생산가격을 낮출 수 있고 설계의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단일제품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음 저감성능을 만족하면서도 동시에 환경적으로도 재생이 용이하다.

자동차 엔진룸 내부 제품군에 적용한 결과에서도 승객의 안락함, 소음 절감, 재생과 관련된 환경규제 측면에서도 여러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hodia 관계자는 “새로운 음향개선 제품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로는 자동차산업에서 연료 분사기, 엔진 커버류, 후드 방열판, 공기 파이프 등에, 전기전자제품 분야에서는 하우징류 등에, 그리고 앞으로는 건축 분야의 소음저감용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4/13>